시대에 던지는 교황의 화두: 시노달리타스(함께 가기 위하여)

시노달리타스는 ‘함께’와 ‘길’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가기’, ‘함께 가는 길’,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은 쉬운 단어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모두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반성은 사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늘 던지는 물음입니다. 신부님들이 본당 사목을 하면서 늘 부딪치는 물음입니다. 나는 교황이 왜 이런 화두를 던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함께 가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의 교황 강론, 다른 교구, 가톨릭 지금 여기 참조)

1. 하느님을 데우스라 부른다면

1. 교황이 화두로 내건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는 시노두스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시노두스는 세계 주교회의입니다. 시노두스는 ‘함께’(σύν)와 ‘길’(ὁδός)이라는 쉬운 단어로 합성되어 있습니다.¹⁾ 시노두스는 ‘함께 가기’, ‘함께하는 길’, ‘함께 가는 길’, ‘함께하는 여정’, ‘동행’입니다. 시노달리타스(σύννοδαλιτας)는 함께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정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공동 합의성’이라고 번역하면 쉬운 용어가 알아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개념에 붙들려 이 화두를 던진 교황의 의도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교황이 화두로 내놓은 시노달리타스는 단순히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직자와 평신도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교회를 운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주교회의가 시노달리타스를 ‘공동합의성’으로 번역했다가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보는 자세는 ‘함께함’과 ‘함께 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합의 이혼이라든지, 사고(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이 합의를 보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런 합의는 ‘함께함’,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했으니 이제 쌍방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갈 길을 갑니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은 모든 것을 민주적 합의를 거쳐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을 읽고 희생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일치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함께 갈 때는 의회주의적 합의보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느끼고 읽는 것이 더 근원적입니다. ‘함께함’, ‘함께 감’, ‘함께하는 여정’, 동행은 합의를 초월한 행위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례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시노달리타스 용어를 한국어말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라틴어 ‘시노달리타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주교회의는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을 위해 모든 하느님 백성이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며 논의하는 여정의 구조와 정신을 담고 있는데, ‘시노달리타스’, ‘공동 식별 여정’, ‘함께 가기’, ‘동반 여정’ 등 한 단어로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 여정이라는 핵심적인 의

1) σύννοδος의 동사는 συνοδεύω인데 ‘같이 여행하다’, ‘같이 가다’의 뜻입니다. σύν을 접두어로 한 단어는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집회, 회당)도 있고 공관 복음할 때 공관(시놉시스 = 함께 + 봄)등이 있습니다.

미를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궁색합니다. 주교님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몰라 우리말로 옮기지 못한 것을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소한 외래어를 익히느라 이 단어가 본래 말하고자 한 것을 더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외래어는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보다 알아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주교님들의 이런 결정은 데우스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길 수 없으니 데우스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우스는 ‘하늘’이나 ‘님’의 합성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나 ‘천주(天主)’가 아닙니다. 주교회의가 이런 근거로 ‘하느님’이라 부르지 말고 데우스로 부르기로 결정하고 신자들에게 그렇게 부르게 한다면, 우리가 데우스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데우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과 님이라는 단어가 ‘데우스’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소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말이 너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사실 일반적인 것이 좋습니다.) ‘함께 가기’, ‘함께 가는 길’, ‘함께 가기 위하여’, ‘함께 살기’(최진우 신부, 가톨릭 마산) 등으로 번역하고 이 용어로 교황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를 화두로 내건 교황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목적일 것입니다. (어차피 이 용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설명할 것이 아닙니까?)

2. 교황이 ‘함께 가기 위하여’라는 화두로 이 시대에 던지고자 하는 것은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목표이고 그렇게 교회는 인류를 이 목표로 안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교회와 시노드(synodus)는 동의어(synonym)”라는 크리스토모스를 인용하여 성직자와 평신도, 교회와 세계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황은 교회 안을 향하여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교회와 세상 그렇게 온 인류가 함께 갈 때 인류에게 미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들 사이에 ‘함께’가 깨질 때 이들 각자의 미래는 물론 온 세상이 암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 화두를 던지면서 함께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길 위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남에게 열어야 하고 서로 들어야 하고 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신앙의 감각),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함께 가자.”라고 한 말이 정말 복음에 근거한 것인지, 성령의 뜻에 따른 것인지 식별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소한 ‘과정(Process)’이라는 용어도 만납니다. 우리는 한 인간 개체가 아니라 그의 인생 과정과 함께해야 합니다.

3. 교황이 ‘함께 가기 위하여’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교회와 인류에게서 이 ‘함께’가 깨지는 것을 본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교회와 인류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 깨짐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함께’가 깨지는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교황은 이 화두를 던지며 ‘함께 하는 인류’, ‘함께 가는 인류’의 꿈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본당에서 시노달리타스 용어를 신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는 몇 가지 단순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1) 신자들에게 ‘함께 가기 위하여’(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를 던진 교황의 취지를 설명하고
- 2)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겼으면 좋은지 논의하는 것도 이 용어를 실천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3)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가 어떤 명사 어떤 술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지 묵상하는 것도 ‘함께 가기’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4) 성경에서 ‘함께하고’ ‘함께 가는데’ 모범을 보인 인물, 자기에게 영향을 준 ‘함께 가는 인물’,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함께하는 인물’, ‘함께 가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자기의 삶과 교회의 방향을 잡는 데 좋을 것입니다.
- 5) 그 전에 성직자들이 먼저 ‘함께 가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황이 이 용어를 화두로 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사실 이 배경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함께하는 인물’을 몇 명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2. 이 시대에 던지는 교황의 화두

가. ad extra

1. ‘함께 가기 위하여’에 대한 교황의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아르헨티나의 한 교구 주교님이 교황이 되면서 교회에 가진 그의 관심사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는 교황이 되어 인사할 때 자기를 교회의 변두리에서 온 교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주교가 로마 교회의 중앙으로 출세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중앙을 향한 하느님 백성의 시선을 변두리로 돌리기 위하여 교회가 자기를 교황으로 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세상에 보인 행동은 램페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시선을 램페두사로, 세상의 변두리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하느님 백성에게, 특별히 세계의 힘 있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안 보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교와 교회가 할 일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중앙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목 교서로 발표한 것을 잘 지키며 따랐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교와 성직자가 먼저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교황은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 없고 고통 없는 행복한 하느님 나라를 제시하며 거기로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두리를 향하는 자만이 자기가 찾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을 천국이라는 유토피아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로병사, 애증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사도들이 할 일, 주교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변두리를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은 교회의 시선을 변두리로 향하게 하며 변두리 인생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 시노달리타스를 화두로 던진 교황에게서 우리는 세상과 인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인류와 함께해야 하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미래는 시노달리타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에게는 인류와 함께 가는 정신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현장은 말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사목현장 1)

함께 여행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길입니다. 공의회는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교회현장 14)

“순례하는 교회는 자신의 성사들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로마 8,19-22 참조).”(교회현장 48)

“그분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로 모인 우리는 인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순례하고 있다.”(사목현장 45)

“하느님의 백성은 지상 순례를 계속하는 동안 비록 그 지체들 안에서 죄로 상처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약에 따라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까지 하느님의 온유한 인도를 받는다.”(일치교령 3) 함께 길을 가는 것은 상처받은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난민, 가난한 이, 사회의 약자(난민, 외국인, 어린이, 여성 등), 고통받는 이는 늘 교회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구아르디니아)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그대로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나. ad intra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용어를 화두로 던지며 온 하느님 백성이 이 단어로 토론하도록 한 데에는 함께 가야 할 교회, 함께 가자고 해야 할 교회가 함께 가고 있지 못한 것도 그 한 이유입니다. 입으로는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함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이런 상태, 이런 선교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는 성직자 중심주의(권위주의)와 영적 세속성, 근본주의도 크게 작용한다고 교황은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직자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듣는 목자입니다.

3. 시대의 진단과 우리의 반성

1. ‘함께 가기 위하여’란 화두의 정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차 바티카 공의회(1869~1870년)가 교황의 무류성을 반포한 이후로 교황은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조언이나 공동 의사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가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열렸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1904~1984년)는 교회의 역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서(제1기는 원초교회, 제2기는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제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3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을 만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다준 공의회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있기를 바랐다면 제2차 바티칸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야 한다며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사목 헌장 1)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동안 교회가 일방적으로 내적으로는 자기 신자들을,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을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로 인식한 것을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사회라는 표현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시대로까지 소급해 올라가는데,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보다는 국가가 질서 체제에서 완전한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조직적인 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평등성을 배제한 엄격한 교계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사회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오로지 성직자들 손에 달렸고,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존재, 또는 성직자들로부터 성사를 받는 존재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이후 세속화가 가속화되면서 교회는 정치력을 잃게 되었고, 주교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영적·사목적 과제에 충실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항하여 자신을 완전한 사회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 23세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교회를 “성사”(LG 1)와 “하느님의 백성”(LG 4)으로 표현하면서 교회를 사회의 모델(완벽한 교회로서의 교회)로 보는 것을 극복합니다.

2. 교회헌장은 평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되찾아 주어 평신도가 교회에서 새롭게 가치 있게 살게 하였습니다.(10항)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신 분의 능력을 선포한다(1베드 2,4-10 참조).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10항)

이로써 공의회는 가르치는 교계제도와 배우는 평신도로 구분하는 관행을 종식시킵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여기서 자신의 소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하느님 자녀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맡은 평신도는 자신의 임무와 역할과 적절한 행동의 맥락에서 교회 통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헌장은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은총으로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키신다.”(LG 12). 또한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

다.”(LG 37)고 강조합니다.

성령이 직무와 소명과 선교에 따라 다양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의 역동적인 주제로 일치시키는 일치의 원칙이라면,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입니다(LG 11; 전례 현장 10항),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교회현장 11). 하나의 빵은 많은 밀알로 만들어집니다.

3. 공의회가 끝난 지(1965년) 반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교회는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성직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 주교단, 베드로 후계자들이 역삼각형처럼 조화롭게 통합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는데 성직자는 여전히 삼각형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평신도의 세 가지 직무(왕직 예언직, 사제직)가 실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개방과 쇄신을 외치지만 자신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 백성 구성원이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잘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이 용어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다가갈 것을 주문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실천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시노달리타스 용어가 주교 시노두스에서 파생한 것임을 유념하게 됩니다. 시노두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기 3개월 전 교황 바오로 6세가 연 세계의 주교님이 주축이 된 대의원회입니다. 공식 명칭은 synodus episcoporum이고 우리말로 세계주교대의원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²⁾ 그다음 세계 떠오른 단어는 주교단이었습니다. 주교단의 공식 명칭은 collegium episcoporum³⁾입니다. “교황을 단장으로 하고 주교들을 단원으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목의 주체로 구성하신 단일한 단체”입니다. “주교단은 전체 교회를 사목하는 주체이며, 교황과 수직적으로 일치하고 주교들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결속하여 구성하는 법적이며 윤리적인 친교의 공동체”(가톨릭대사전)입니다.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주교들의 ‘함께 가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함께함’, ‘함께 감’이 전체 교회, 전체 하느님 백성에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주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시노두스(‘함께 가기’)는 주교들(성직자들)의 ‘끼리끼리 모임’을 벗어나 전체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주교들(성직자들)이 모여 일치를 본 것을 신자들에게 알리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대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가는 데서 교회의 본 모습(순례하는 교회)을 보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노드에 참석한 주교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동행(함께함)을 신자들에게 강조하며 따르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하는지, 함께 가는지,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읽고

2)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된 주교들이 전체 교회와 관련된 중요문제들을 협의하여 교황을 보필하는 상설 기구.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Apostolica Sollicitudo)에 의하여 1965년 9월 15일에 창설되었다. ...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이 회의는 ‘가톨릭 주교단 전체를 대표하느니 만큼 모든 주교들이 교계적 교류로써 세계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5항).” (가톨릭대사전)

3) collegium은 단체, 단(團)으로 번역됩니다. colligere:(한데 모으다), collega(동료, 동업자), collectio(헌금) collegialitas(단체성, 동료성)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리하여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던진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교황 자신과 주교 그리고 성직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기를 비롯한 주교들이 자신 들끼리 시노두스에서 얻은 결론을 신자에게, top down 방식으로(하향식, 수직적으로, 일방적 으로) 전달하며 이를 따르기를 요구하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교회 에서 교회와 세상의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신자(세상)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 하는 교회(성직자 중심주의의 교회, 권위주의의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보고 함께 듣는 자세,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희망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반성하며 하느님이 현존 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만나게 해주는 교회, 원천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사는 교회 를 가꾸자고 호소합니다. 세상과 신자들을 교회(성직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 이 런 짓을 많이 했다 - 성직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변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 다. 함께 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 듣는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함 께 가는 길’을 거부하고 교회마저 이런 기류에 편승하여 떠밀려갑니다.

교황이 던진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는 주교님(성직자들)에게 부담을 주며 거북하게 하고 불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교에게 대놓고 묻는 것 같습니다. “시노두스에 모이신 주교님, 여러분은 함께 갑니까? 시노두스적입니까?”

이렇게 볼 때 ‘함께 가기 위하여’(시노달리타스)는 단순히 주교들끼리 로마에 모여 하던 모 임을 전 세계 각 교구의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넓히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하느님 백성의 의견을 로마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 회의하기 위하여 던진 주제가 아닙니다. 중앙으로 향하던 눈과 귀를 변두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는 아래를 향합니다.

‘함께 가기’는 교황이 2013년 8월 안토니오 스파다로 SJ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가야 한다. 백성, 주교, 교황 다 함께 가야 한다. 시노달리타스는 다양한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시노드가 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노드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한 데서 분명해집니다.

2015년 10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 시노드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자기는 교황으 로 선출된 후 공의회가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인 시노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가 져왔으며 시노드의 정신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입 니다.”

5.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교회가 새로운 선교적 추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며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은 복음화의 적극적 인 주체이자 선교하는 제자(EG 120)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를 구성하며, 대 중 신심, 일상적인 사목에 대한 헌신, 문화 분야에서의 능력과 사회적 공존(EG 126 참조) 등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지위와 그들과의 생활 경험은 때때로 이 그 룹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직자는 충성스러운 평신도의 존재를 존중해 야 합니다. John Henry Newman 추기경이 “평신도 없이 교회는 멍청하게 보일 것”이라며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은 책임 있게 평신도의 존재와 그들의 조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형태가 일종의 ‘평신도 의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가기’의 주제들

은 민주주의의 다수 의결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top down 방식의 성직자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곧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주교 단체성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황이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 있다고 교황의 무류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의 수위권은 시노드 교회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교 시노드는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가운데 주교와 주교, 주교와 교황을 연결하는 동료성(collegialitas)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반포한 교황 권고 *Episcopalis communio*(EC)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비교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입니다. 공의회는 교회의 직무자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 임무를 다루었지만, 이 문헌은 이론적인 주장을 교회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들음'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시노드의 실천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목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교사”로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로마 주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4. 식별 - 하느님의 뜻

1. 다양한 목소리에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오히려 자유를 창조한다고 교황은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교회를 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별의 문제가 따릅니다. 국회는 현안의 문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예컨대 낙태와 이혼 등)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의 서품, 여성 사제 등)

여기에 교황의 결정(교황의 무류성)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교황의 결정이 성령의 식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노달리타스는 교황의 결정권에 다 막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사도 회의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자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사도 15,7-9,10) 베드로의 연설에 온 회중이 잠잠해졌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 시노달리타스는 ‘영의 식별’ 또는 간단히 ‘식별’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식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의 식별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이 뿌리를 둔 것입니다. 식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예수가 당신과 함께 또 당신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를 저

울질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별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동기와 초대와 뜻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 8,26-27)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3.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은 신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에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루카 1, 34-35)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별하기 위해 동정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5. 들음

1.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2022년 세계 주교 시노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미사 강론에서 시노드 주제인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면서 만남과 들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종종 여행 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고, 그들의 질문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십니다. 진정한 만남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교황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경청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교회의 질문, 우려, 희망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제시하는 도전과 변화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귀를 막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확신에 방어벽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서로서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황은 시노드 정신에 입각한 교회는 “들음의 교회”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를 교황의 수사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황은 강조합니다. “시노드는 만나는 것과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식별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고 여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보물인 그 빛 가운데’서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2.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는 대개 성직자는 말하고 평신도는 듣는 자가 됩니다. 평신도는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들러리입니다. 시노드가 진정 교회(하느님의 백성)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나시오가 말하는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내적 자유가 회의에 임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사전 결정과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더 나은 논쟁을 통해 새로운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과 내적 외적 빈곤, 개방성과 학습 능력, 만남의 즐거움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은 참가자들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리석거나 거짓되거나 이기적이거나 직접적인 악의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의에 임하는 자의 기본자세는 듣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유혹이 크지만 듣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만이 나중에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들은 내용이 반향을 일으키고 논쟁에 대해 숙고하며 종종 혼합된 감정을 정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편견과 결정을 상대화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성찰과 토론의 과정을 바꾸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듣게 합니다.

서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그 자체로 답일지도 모릅니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교육하려는 자세를 벗어나 듣는 교회.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민을 들을 때 답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3. 듣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을 선언할 때 “쉐마,”(들어라)라는 말을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느님의 나라가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귀를 기울이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미사 때 독서를 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독서를 하는 것은 신자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듣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들음이 방해받고 있습니다.(‘매일미사’를 함께 보고 읽도록 하는 것?)

6. 신앙의 감각

1. 평신도와 하느님 백성에 대한 공의회는 이해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진실성이 분명해집니다. 공의회는 “전체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말하며 “성령께 도우를 받는 신자 전체는(1요한 2,20.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교회헌장 12)라고 말합니다. 서품된 직무자들이 독점적으로 진리를 집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사도 2,17-18; 묵시 19,10 참조),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하셨다.”(교회헌장 35)

사제교령은 신앙의 감각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제들은 “평신도들과 협력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오신’(마태 20,28) 스승의 모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사제들은 평신도의

품위와 더불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 평신도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소망을 형제애로 숙고하며,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제들은 평신도와 함께 시대의 징표를 인식할 수 있다. 사제는 어떠한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판단하고, 평신도들이 받은 높고 낮은 여러 형태의 은사들을 신앙 감각으로 찾아내고, 기꺼이 인정하며, 열심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 ...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신뢰로써 평신도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행동의 자유와 여지를 남겨 주며,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있는 대로 격려하여야 한다.”(사제교령 9)

신자들은 교회를 교회법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단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친교의 교회론은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통 사제직을 구성하고 교회를 하느님의 궁극적 진리를 찾아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 바오로가 로마에 사는 하느님 백성에게 쓴 편지에서 신앙의 감각을 존중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로마 15,14) 성직자 수도자들은 신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평신도들이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하고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늘 굶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바오로는 그들이 온갖 지식을 갖춘 학자처럼 하느님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단순한 삶으로 그 어느 교회의 사람보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더 잘 표현하며 살아가고 그 누구보다 더 타이를 줄 압니다. 그들은 문자와 교리에 갇힌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이들 평범한 신앙인의 마음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인생을 과정으로 만나다

‘함께 가기 위하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황의 말에 중간중간 나타나 지나치기 쉬운 단어인데 ‘과정’(process)이라는 용어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하나의 완전한 결정체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과정에는 슬픔과 기쁨, 고통과 쾌락, 성공과 좌절이 늘 교차하여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은 암흑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좌절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다행이며 잘된 일인지 우리는 체험하곤 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 아픔이 은총이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인생은 과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길에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고백했다가 내일 배반

하고, 내일 배반했다가 모레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이나 배반한 순간만을 그의 인생 전부로 보려다가 그의 전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을 받아들이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산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의 인생 과정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당신을 부정하며 떠났어도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선 한 인간의 삶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난날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늘 교회 안에 함께했습니다. 교회는 죄인의 교회이며 성령의 교회입니다. 온갖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신자들에게 은총을 체험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과정입니다. 대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8.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루카 6,12-13)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말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과 일치하는지 성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식별의 근본 자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특별히 가난한 이들은 성령께서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이들의 권위 아래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 자신을 열도록 개종 과정, 즉 식별과 정확화 혁신(EG 30)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이야기할 주제

우리 교구 하느님 백성이 모여 ‘함께 가기’를 알차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교황과 유럽 교회의 하느님 백성(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회의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논란을 소개합니다. 이 방대한 논의를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심 속에 교구 하느님 백성이 모여 ‘함께 가기 위하여’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9. 다른 나라의 경우

가. 유럽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회의할 때 수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라고 교회가 다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에는 복음과 성령에 근거한 식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의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교황의 강론이나 연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황은 성직자 중심주의(권위주의)와 함께 영적 세속성 비판.
- 성직자 중심 교회의 탈피(신자의 성직자화가 아니다.)
- 남성 중심의 교회 탈피(여성의 남성화가 아니다)
- 종교의 근본주의
- 사제 감소, 독신제와 결혼한 자의 서품(viri probati), 종신 부제(결혼한 부제)
- 여성 사제와 여성의 역할
- 성직자의 성추행
- 이혼한 재혼자의 성사 생활
- 교파가 다른 부부들의 영성체
- 성소수자 문제 등
- 탈 교회 현상(독일의 경우 2019년 27만 명이 탈 교회. 한국의 경우 냉담자 문제)
-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파, 자연 종교와의 만남
- 가난한 이, 약자, 고통받는 이, 난민 문제
-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채 탕감, 금융거래, 무기 확산금지, 신식민주의, 노동, 여성문제.
- 생태학 문제, 기후변화, 탈탄소 문제 지구 살리기 등

** 성직자 중심주의: 시노달리타스는 성직자가 평신도에게 주는 플래시보⁴⁾가 아닙니다. 성직자들은 50년도 더 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평신도의 사제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을 교회의 주체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평신도가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진정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노달리타스를 민주주의식 합의로 생각하며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오히려 민주 체제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오늘날 여성들은 과거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종 본당의 기둥이 됩니다. 그들도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4) Placebo 가짜 약, 偽藥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제로 심리적 효과를 얻음.

** 영적 세속성과 위선: 교황은 자주 성직자 중심주의와 영적 세속성을 비판하며 성직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영적 세속성에서 교회의 위기를 봅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권위주의와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세속성을 반성하기 위하여 성직자는 예수님께서 올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라 하시며 불행을 선포하신 것을 자신을 반성하는 잣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성에 영성의 옷을 입힌 것이나 잘못에 선의 옷을 입히려는 것이나 같은 논리기 때문입니다.

** 사제 감소와 함께 결혼한 자의 서품(viri probati), 여성 사제: 우리나라에서는 덜 하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여성 사제 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이 성찬례를 포함하여 전례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의식이 바뀐 시대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오래된 역할과 임무가 이야기되고 있을 뿐 정의와 권력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집권 후 교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신호와 함께 여성 서품 이야기가 불붙다가 지금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이에 실망을 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가 다르게 이야기되는 문화적 차이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사제가 탄생하는 때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pro und contra의 논란이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허가될지 누가 압니까? 여성 주교가 우리의 교구를 이끄는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1백 년 전 2백 년 전에 누가 한국에서 라틴어가 아닌 한국어로 미사를 드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의는 발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식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합의를 보는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 ‘함께 가는 교회’(시노달리타스)의 기본 주제가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의 기쁨 48 참조.) 교회는 탈중심과 변두리 지향을 지지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아나뱌(가난한 이들)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하고 그들의 짐, 나아가 인류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의 공생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한 교회 변화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교황은 회칙 Fratelli tutti(FT)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난민, 이민자의 시급한 문제를 강조하며 교회와 사회의 모든 사람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이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는” 이 네 가지 행동에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본 것을 다시 의식하게 해주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이자 자신을 부모 해방시켜 주는 주체로 볼 뿐만 아니라 복음화의 주체이자 활동적인 전달자로 보고자 했습니다.

** 교파가 다른 부부의 함께함: 성체는 아무나 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하여 고해성사도 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와 교파가 다른 부부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신자는 성체를 영하고 신자가 아닌 배우자는 성체를 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성체를 영할 수 없을까요? 주님은 신자하고만 ‘함께하시는 것’일까요? 조당일 경우 미사에 참석해도 성체는 영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체성사를 일치의 성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치입니까? 성체는 누구와 일치를 위한 것입니까? 성체를 영하는 사람끼리만의 일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미사 때 종파와 교파를 넘어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온 인류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때 일치는 누구와 누구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생각하며 성체를 영하는 것은 가톨릭만의 일치가 아니라 종교와 민족을 넘어 일치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일치의 성체를 받아 모시면 세상이 일치합니까? 우리는 지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물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성체를 성사로 이해하고 있고 신자가 아닌 이들은 성체를 그냥 빵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스 우르스 발타살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을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빵을 나누면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세계의 여러 교회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서로 배타적이라면 분명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사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식별이 요구됩니다. (최양업 신부와 바르바라의 예)

** 자연과 함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매, 어머니 대지”(찬미받으소서 1)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빈곤층과 환경의 연결은 모든 인류의 미래가 환경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약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창조된 것을 보존하는 것과 일치합니다.(찬미받으소서 16, 91, 117, 138, 240).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과 그들 안에서 버려진 가난한 자들과 황폐해진 땅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동행할 때, 그들이 그들 편에서 교회가 어떤 제도에 빠지는 위험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나. 아마존 시노드 (2019년)

- 빈곤층과 소외계층, 토착 원주민과 이주민의 후손들과 소외된 사람들,
- 토지 약탈, 대량 학살, 실항민, 취약하고 위기에 취약한 젊은이들, 마약,
- 이들의 문화 전통, 특히 토착 민족의 전통을 편견 없이 이해해야 하는 과제,
- 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와 생태학 관심: 환경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기본적 권리에 관하여
- 기후 위기: 지배적인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가치가 있다.
- 여성 부제 또는 사제 서품에 대한 요구가 최종 문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존 유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사적 위임. 결혼한 사제, 개종 문제
- 메델린(1968)과 푸에블라(1979)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가 내놓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반영되었다. 2019년 10월 20일 “공동의 집을 위한 카타콤 협정”에 서명한 내용: “우리는 어머니 땅의 소유자와 주인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어머니 땅의 아들과 딸들인 줄 아노라.”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생태학에 전념한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토착민을 위한 우선 선택을 (갱신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의 주인공이 될 권리를 확보하고 식민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거부하고, 시노드 생활방식,

예언적 행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과의 연대는 아마존 교회의 특징이어야 하며, 방문하는 사목에서 참석하는 사목회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0. 우리 교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가. 함께합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 가기’는 구체적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의식하고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교회’, ‘듣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세상의 변두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성찰하는 물음 없이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이 의도한 바입니다.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1.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직자를 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평신도를 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한 모습을 직접 그려보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성직자는 평신도와 함께 갑니까?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와 함께 갑니까?

가진 자는 가난한 이와 함께 갑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밅니까? 손을 잡아 일으킵니까?

그들의 마음을 듣습니까?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들의 인생 과정을 동행합니까?

그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줍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 성직자들의 성찰

1. 신자들이 사제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를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를 논 의하는 과정에서 평신도가 자기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제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세례받지 아니한 남편이 성체를 영해도 됩니까? 조당 걸린 자가 성체를 영해도 됩니까? 결혼한 사람도 신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 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안 된다고 대답하겠지요. 그 대답에 만족합니까? 정말 여성 사제는 세상 끝날까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구에서는 평신도 협의회를 사목회라고 부릅니다. 사목회장은 평신도입니다. 사목회장이라면 사목하는 자들의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가 자기도 사목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목자가 아니라면, 사목할 수 없는 존재라면 왜 사목회장이라는 명칭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본당 신부님의 사목을 돕는 협조자라

는 대답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본당 신부 도우미라고 하지 않고 사목회장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모임을 왜 사목회라고 부릅니까?

똑같은 질문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평신도는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를 우리는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나도 사제라고 하면 무엇이래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은연중 일반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느새 직무 사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답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무 사제직을 주장하려면 왜 이런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 신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습니까? 우리는 평신도가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제직, 가짜 사제직의 악을 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사제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사제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품을 받으면서 나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제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부끄럽습니다. 사제가 되는 날,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제로 받아들일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평신도가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평신도 사제직을 이야기한다면, 사제로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과제임을 말해 줍니다. 이는 교회가 자기 발전 과정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평신도 사제직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제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며 이에 열려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달아서 안 됩니다. 이런 질문에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히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가 수행하는 사제직이 직무 사제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제직(사목직, 사도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제직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로 의도한 바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지 못했고 교황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 성찰은 본래 우리 존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라는 화두를 던지며 주교님들을 난감하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과제는 성직자 중심과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중심과 권위주의는 신자들이 아니라 어차피 성직자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직자 중심주의(권위주의)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느님 백성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자들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또는 ‘함께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게 하기 전에 성직자들이 먼저 함께하는 마음,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게 자기 모습으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함께 가기’가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는 본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본당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본당의 역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당 신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본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당 신부가 본당에 부임한다는 것은 본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당 신부가 바뀔 때마다 역사가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본당이다.”하며 신자들이 신부에게 복종하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당의 회장단, 수녀, 사무장, 신심 단체, 성당 건물, 장식품 등은 신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본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구도 일방적으로 본당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구의 모든 본당이 다 똑같이 모든 신심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본당은 레지오 마리아가 강점일 수 있고 어떤 본당은 성경 공부가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제가 되면 혼자 결정하는 식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가 최종 책임자라는 것은 혼자 결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 신앙의 감각을 읽는 영성, 기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전체 교회를 듣는 데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교황이 ‘함께 가기’라는 화두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적이고 사목적이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요한 10,3)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양이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기 때문이다. 양은 그 목소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보살피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양은 모르는 이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달아납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요한 10,5)

요한복음 사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부언(附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내세우면서도 양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목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백성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들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듣기 위하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것은 함께함의 근본입니다. 세상의 아픈 소리를 듣는 교회. 이것이 교황이 ‘함께 가기’(시노달리타스)로 교회와 세상에 하고픈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는 교회 안팎의 모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이방인, 죄인, 무식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에 안 되는 사람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인생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물론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를 위해 수행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자는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본당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구호를 이번 기회에 성직자들이 신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하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은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나도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본당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가끔 신부님들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신자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 신부님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뒷 끝은 없다”라고 다른 신자가 그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신부님이야 뒷 끝이 없어 속이 편하겠지만 상처 입은 신자들의 마음은 누가 달래줍니까?

어떤 낯선 젊은이가 내게 상의하러 왔다가 내게 “신부님은 어떻게 처음 보는 제게 말을 낮추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말을 낮추지 않았는데 내 말투가 그렇게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 고치지 못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다. 성경에서 ‘함께’ 찾기

신자들에게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 이 단어가 나오는 문장을 묵상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단어와 함께 누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 묵상하며 시노달리타스의 느낌을 얻도록 합니다.

- 접속사 또는 접두어 함께(σύν)이 나타난 성경 구절을 마르코와 루카 복음에 따라 몇 구절 인용합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루카 1,56)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루카 7,6)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루카 7,12)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남자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청하였다.”(루카 8,38)

하녀가 베드로에게 “이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루카 22,56)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마르 2,26)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와 그분 제자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마르 2,15. 200주년 성서)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마르 4,10)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 (마르 6,33)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마르 9,4)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마르 14,31)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마르 15,27)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마르 15,32)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마르 15,41)

- σύν 말고 ‘함께를’ 뜻하는 접속사로 μετά도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따라 찾아보았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1,3), 샹꾼들과 함께(1,20),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1,29),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2,6), 신랑과 함께(2,19), 제자들과 함께(3,7; 8,10; 8,34; 14,14; 14,17 등),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3,14),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5,24),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8,38), “나와 함께(14,18)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시종들과 함께(14,54)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14,67) 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함께(16,10) 지냈던 이들이”,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16,20) 일하시면서”

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슬로건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et

cum spiritu tuo)하고 대답합니다.⁵⁾ 이 인사를 하면서 사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은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인사를 하는 사제는 누구입니까? 인사를 주고받는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심을 느낍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만 하였지, “서로 함께하라.” 하고 가르치며 요구만 하였지, 실제로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성직자는 하느님 백성과 함께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란 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종족과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방인도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종종 “너희들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들과 함께했습니까? 난민과 가난한 이, 병든 이와 연약한 이들과 함께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는 미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에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한 이래 끊임없이 인류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성체를 영합합니다. 그분처럼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쪼개기 위해서 성체를 영합합니다. 성체조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서로 인사하며 미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만 하고, 성체성사를 강조하면서도 세상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인사는 미사 중에만 유효한 인사가 아닙니다. 미사가 끝나면 사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하고 말합니다. 미사에서 체험한 ‘함께함’, ‘함께 감’을 세상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난민, 성소수자 등).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생태학, 탄소, 기후변화 등).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함께합니까?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를 연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머물지 않을 때 하느님의 영에 자신을 맡길 때 사람은 교회에서 빛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함께하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하는 공동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인류와 함께 가면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 목적지를 향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함께함’에 동참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 때로는 더 비판적입니다. 세상이 결정한 것을 교회가 다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식별의 문제가 따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우리에게 부담이며, 도전이며 용기를 새로 불어 넣어줍니다. 부담과 도전에 굴하고 제 자리에 머물 때 교회는 미래를 열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하는 우리 성직자들이 먼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정신’(시노

5)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는 말은 ‘함께’를 느끼기에 부족합니다. 원문은 “et cum spiritu tuo”(“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입니다. 우리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할 때 “또한 사제와 함께”하고 인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spiritus)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원어 그대로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사제의 영’이라고 하면 ‘사제의 영’이 따로 있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타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정신’(시노달리타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마. 함께하시는 하느님, 듣는 하느님(탈출 3,7)

모세는 ‘한 분 주님’이신 하느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체험했습니다(탈출 3,2-15).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탈출 3,7)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술어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당신 백성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셨고’, 그들이 고난을 받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듣는 하느님은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그래. 알아.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위로합니다. ‘안다’는 말보다 더 그를 안심시키며 위로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와 나, 나와 그가 하나 되게 합니다. ‘안다’고 말하는 그에게 나의 고통은 그의 고통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가까이, 너무도 가까이 계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되면서 하느님께서 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들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을 알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느님을 안다면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하느님도 그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백성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어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르코 349).

이리하여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들으라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인다고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그분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귀를 세우면 될까요? 하늘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하느님 음성을 듣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던 곳에 사는 자기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되어서야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은 늘 자기 민족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듣지 못했던 고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야 떨기 가운데서 하느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은 백성을 통해

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희로애락의 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 주십니다. 하느님은 피조물의 소리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피조물의 소리를 통해 그들을 내시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들음의 사건 후 모세는 이집트로 갔고, 자기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사막을 지나는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늘 불평하였지만, 백성의 소리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이기에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을 압니다.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모세는 듣는 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들어라.” 그의 이 명령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을 들어라. 이웃을 들어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한번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입니다(신명 5,3).

하느님은 자신을 전달하시는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분. 백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벗어나려 해도 하느님은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바. 함께하시는 예수님

마르 3,13-15: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르 6,7-13: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1.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들의 속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걸으신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함께 가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부모 형제와 처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함께 하는 ‘나’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나, 자비의 ‘나’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리스도, 듣는 이, 함께 아파하는 이, 자비의 인간이 되는 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함께하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그들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가난한 이, 배고픈 이, 병자, 약자, 이방인, 난민들과 함께하시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시는지 가까이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가면서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의 배반은 ‘함께 함’, ‘함께 감’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마르 8,33).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

가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19)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로 살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오류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 모든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마르 6:7) 둘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틀어지기 쉬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둘은 이것을 함께 가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마르 6:8-9) 이르신 것도 함께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이 삶에서 평화를 비는 마음이 진실한 것이 됩니다(마르 6:10)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마르 6:11)고 하신 것은 쾌심죄를 적용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삶’을 거부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μετά)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마르 3:13-15)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분의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이, 병자, 소외된 이, 이방인, 죄인,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는 삶입니다. 그분의 함께함을 느끼면서 일어난 삶(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그분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 ‘함께하는 인물’, 함께 가고 싶은 사람,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성서에서 찾기

연중 32주 미사 독서를 통해 함께하는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1 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와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언자가 땀감을 줍고 있는 사렘타의 한 과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다. 그 여자는 시키는 대로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여자를 다시 불러 빵도 한 조각 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고 단지에 남아 있는 밀가루 한 줌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하고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으로 땀감을 줍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여자에게 빵을 청한 것이 미안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터인데, 엘리야는 그런 사정을 듣고서도 과부에게 먼저 자기를 위해 빵을 만들어 내오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말합니다(1열왕 17:10-16).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과부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어떨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은 생판 모르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자기와 자기 자

식이 마지막 먹을 것을 이 낯선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부에게서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이 낯선 사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는 함께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인류에게 이런 과부의 ‘함께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시대는 이런 마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함께함을 이야기하며 이런 함께함을 요구합니다. 복음(마르 12,41-44)에서 들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도 온 존재를 바쳐 ‘함께 가는 이’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나 나오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노래한 기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억눌린 이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굶주린 이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잡힌 이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눈먼 이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꺾인 이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풀어 주고 그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과 함께 가는 마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와 함께 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믿음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을 것입니다.(시편 146)

불쌍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주는 것으로는 그들과 함께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온 존재를 바쳐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직접 상처를 준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함께하지 못할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저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사실 이들은 나의 이 질문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를 느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함께 감’을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이 저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이건만 그와 함께하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날 제2 독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히브 9,28)라는 말을 듣습니다. 함께 가는 일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마음 위에서 가능합니다. 함께 가고자 하신 그분의 마음이 쪼개진 빵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몸에는 인류와 끝까지 같이 가고자 하신 그분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그분의 몸을 먹고 함께 가는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면, 미사 중에 성체를 받아 모신다면, 쪼개진 몸을 받아 모신다면, 우리의 몸을 쪼개기 위해서입니다. 미사를 마치고 사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한다면 “가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을 쪼갬시다.”하고 말하는 것이고,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내 몸을 쪼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한다면 ‘함께하기’, ‘함께 가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통해 온 인류가 함께 가는 마음을 배웁니다. 미사 중에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와 하나 된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에 내 인생을 다 퍼붓는 것입니다.

이 빵과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함께 먹고 마셔야 하고, 그렇게 온 인류가 함께 가리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서만 “함께 가자.” 함께하자“고 하였지 내 인생으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는 자기의 몸을 바쳐 함께 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황이 무기 판매를 반대하고 금융질서를 비판한다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삶을 모색하면서 인류가 함께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약자, 가난한 나라를 소외시키며 이들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교황이 던진 ‘함께 가기’ 화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날 영성체 후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11. 식별을 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경 구절을 토론하게 함.

우리 사제들은 계명을 이야기하며 이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당 일을 혼자(?) 결정하려다가 신자들의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자기 개인 생각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⁶⁾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들음과 기도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습니다.

1) 성령의 인도

루카 1, 34-35

2) 식별의 기준: 복음

함께 가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복음화, 세상의 복음화) 정작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복음으로 선포하셨는지 깨달도록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 앞이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몸에서 기쁨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그 앞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이 기쁨의 원천으로 안내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입니다. 종교가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종교는 타락하고 인류는 기쁨을 잃고 혼돈을 헤매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3) 식별의 기준: 하느님의 말씀(마르 10,1-12)

바리사이들이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자 예수님께

6) 마찬가지로 평신도가 사목 회의를 주관한다고 사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결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든다면, 힘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한다면, 사목회는 인간의 힘이 국민의 이름으로 충돌하는 의결기관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기도 없이 하지만 사목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마르 10,1-12)

모세를 핑계로 합의 이혼을 주장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합의는 완고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사목은 더 그러합니다.

4) 식별의 기준: 성경 말씀(마르 12,18-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5) 식별의 기준: 사랑(로마 13,9-10)

바로로 사도는 로마의 신자에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율법과 교리에 얽매인 근본주의자를 양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을 고해성사로 고백했다고 해도 ‘사랑의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으로는 인생을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사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화해와 사랑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성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이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6) 간음하다 잡힌 여자(요한 8,3-11)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다

- 마르 2,23-28

- 마르 3,1-6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

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8) 함께 길을 가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아흔아홉 마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 마리를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내어 함께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에서 흘러나온 하느님 백성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미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지냈는데, 이날 미사 독서와 함께 교회에 대하여 묵상한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날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 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영원한 거처란 하느님의 성전이고 살아 있는 돌이란 ‘우리’,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이 무생물인 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돌로 지어졌다는 말은 결국 살아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고, 성전은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무생물인 건물이나 조직 또는 체계 이상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교회의 구성원 - 주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느님 백성을 이룹니다. 교황도 주교도 평신도도 모두 교회를 이루는 살아 있는 돌 한 조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제도적이 아니라 성전을 이루는 살아 있는 돌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본기도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어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천당을 향하여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가 천당을 향하여 갑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온 혼자로서는 천당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하느님 백성)에 들어와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살아 있는 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자기만 천당 가겠다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발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천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기도는 하느님 백성에게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에제키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47,8-9)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들어야 할 말은 바닷물이 강물을 따라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강물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생명체인 교회가 만물을 살립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에게 흘러들어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문은 세

상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의회 전에는 교회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니 모두 교회로 모이라는 식으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구원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나 제도로만 생각하고 생명체로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세상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온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될 것입니다(에제 47,12).

교회는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복음(요한 2,13-22)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양과 소와 함께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버리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성전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자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이들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성전을 이루는 살아 있는 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은 성전, 살아 있는 돌이 아니라 무생물로 지은 성전, 성전 아닌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당신의 몸으로 성전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흘이란 시간은 부활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사합니다.

이날 영성체송은 베드로1서를 참조하여 지은 기도인데,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라는 우리말 기도는 베드로1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짓는다는 고정관념이 빚은 현상으로 살아 있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살아 있는 우리를 벽돌로 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살아 있는 우리로 구성된 살아 있는 집입니다.